



The Official GOTO Travel Guide
Visit GOTO City

세계유산, 일본유산, 절경, 섬의 먹거리 고토시의 섬들을 탐방하는 3박 4일



고토시의 섬(후쿠에 섬, 나루 섬, 히사카 섬)의 세계유산,
일본유산, 절경 명소를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신선한 해산물, 고토규 소고기 등 풍부한 자연이 키운 섬의
먹거리를 맛보는 것도 여행을 즐기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3박 4일

자동차, 고속선, 도보

후쿠에섬·나루섬·히사카섬

• START



후쿠에 공항 또는 후쿠에항에서 차로 약 5분

1

[1일째] 고토 관광 역사 자료관



고토 관광 역사 자료관은 후쿠에시 출범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현재 2004년부터 고토시에 통합). 구 이시다성의 성내에서 1986년부터 건설 작업이 시작되어 1989년 11월 12일 개관하였습니다. 이 자료관은 고토의 문화적 유산, 역사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해 소개합니다.



차로 약 40분

2

[1일째] 다카하마 해수욕장

천연해수욕장으로는 일본 제일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백사장. 멀리까지 얇은 해수면과 맑은 바닷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토 열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입니다.



녹음에 둘러싸인 은백색의 백사장과 맑은 바다로 잘 알려진 나가사키현 신 관광 100선, 일본의 물가 100선, 일본의 길 100선, 일본의 해수욕장 88선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해수욕장으로써의 환경과 비치하우스 등도 잘 정비되어 있어, 섬 내 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방문하는 행락객들도 성황입니다.

근처의 교란칸논전망소(어람관음전망소/魚籃觀音展望所)에서 보이는 다카하마 해수욕장의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차로 약 20분

3

[1일째] 미이라쿠노시마 섬(지혼가이) (일본유산)

승려 구카이, 견당사와 관련 깊은 땅



미이라쿠 반도는 동중국해를 횡단하여 당나라로 향하는 견당사선의 마지막 기항지였습니다. 기념비에는 '일본의 땅끝을 떠나다'라는 의미의 '지혼가이(辞本涯)'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차로 약 5분

4

[1일째] 미이라쿠 성당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운 성당



미이라쿠는 고토 기리시탄(천주교 신자)의 신앙을 가장 오래 간직한 지역입니다. 1797년 오무라번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가쿠레 기리시탄들은 이 지역에서 조용히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1880년에 고딕 양식의 목조 성당이 완성되었으며 1971년에 현재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모자이크 도안의 벽화는 조개껍질과 도자기로 만들어 다채로우며, 성당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만들어 색감과 배색이 절묘합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스테인드글라스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왼쪽의 스테인드글라스는 고토 가톨릭의 역사를 그렸습니다.



차로 약 10분

5

[런치] 겐토시(견당사) 후루사토관



이 시설은 당나라로 가는 일본 사절단에서의 고토의 역할에 관한 전시물이 특징입니다. 기념품점은 물론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어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차로 약 10분

6

[1일째] 교우가사키 공원의 기항지(일본유산)

견당사선의 기항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곳



사이카이국립공원내에 위치하여, 견당사가 들린 곳으로 역사 깊고 또 자연을 실컷 즐길 수 있는 레저공원입니다. 수 많은 섬과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과 바다, 섬들을 붉게 물들여가며 사이카이 수평선에 지는 석양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차로 약 5분

[1일째] 미즈노우라교회

로마네스크, 고딕, 일본 건축 기술이 섞인 아름다운 백악의 교회



미즈노우라 신도들은 고토와 오오무라반(藩) 정책에 따라서 1797년 소토메(오오노, 마키노, 가미노우라 지역)에 남자 5명과 그 가족들의 이주가 시작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1880년에 첫 교회가 건축되었지만 노후화 때문에 안쪽 독을 깎아서 넓히고, 1938년 데츠카와 요스케(鉄川 与助) 설계, 시공으로 우미한 현 목조 교회로 개축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일본 건축 기술이 섞인 백악의 아름다운 교회로, 목조 교회당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맑은 하늘과 높은 첨탑은 마치 그림같은 풍경입니다.

돈대에는 요한 고토(고토 출신인 26성인 중 한명)의 동상이나 탄압 시대의 감옥터도 남아 있습니다.



차로 약 30분

[1일째] 도자키 성당

고토의 상징적인 성당.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메이지 정부가 기독교 금지령을 해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출신의 두 선교사 프레노 신부와 마르망 신부가 지역 기독교 공동체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 고토로 파견되었습니다. 마르망 신부는 1879년 고토에 최초의 목재 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도자키 성당은 1908년 마르망과 프레노 신부의 뒤를 이은 페뤼 신부의 지도하에 적벽돌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일부 자재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오기도 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전형적인 스테인드글라스와 리브 볼트 천장 구조로, 목조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도자키에는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서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4년에 나가사키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차로 약 15분

9

[1일째] 후쿠에성(이시다성)

일본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해 있는 성



이시다성의 축조는 고토의 30대 영주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건설 작업은 1849년에 시작되어 15년 후인 1863년에 완료되었는데, 공사에는 50,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성으로 당시 3면이 직접 바다에 접한 유일한 성이었습니다.

현재는 과거 성벽 내부에 문화 센터, 고등학교, 고토 관광 역사 자료관과 고토시의 공공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0

[저녁] 후쿠에 지구

고토의 명물은 해산물만이 아닙니다!



고토에서 키운 고급 와규 '고토규 소고기'를 맛보세요.

11

[숙박] 후쿠에 지구



1

[2일째] 후쿠에항(9:45)



고속선으로 약 30분

2

[2일째] 나루 터미널(10:15)



차로 약 3분

3 [2일째] 나루시마 세계유산 가이던스 센터

가치 있는 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해 배워 보세요



에가미 천주당의 '기둥과 장식띠' 실물 크기 모형, 신자가 소장하던 '오라티오(기도문)'와 '히구리초(교회력)', 마리아 관음상, 신앙 도구로 사용된 전복 껍데기 등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루 섬의 추천 관광 명소를 사진과 지도 등으로 소개합니다.

※다국어 Wi-Fi 오디오 가이드를 도입했습니다. 소지하신 스마트폰으로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로 약 15~20분

4 [2일째]에가미 천주당(세계유산)

나루 섬의 '에가미 마을'의 일부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일본의 중요문화재.



에가미 천주당의 역사는 나가사키현 니시소노기 출신의 네 가족이 에가미로 이주하여 세례를 받은 18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의 천주당은 아껴 모은 돈을 천주당에 헌금한 현지 기비나고 어부들과 그 가족들의 헌신으로 1918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성당 건축물의 아버지'인 데쓰카와 요스케에게 천주당의 설계와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특징적인 목조 건축 양식, 부드러운 크림색 벽면, 매력적인 푸른 내리닫이창 등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천주당입니다.

리브 볼트 천장은 천주당의 음향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둥에 손으로 그린 나뭇결과 손으로 만든 꽃무늬 스테인드글라스는 현지 신도들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에가미 천주당은 2018년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의 일부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견학하시려면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차로 약 15~20분

5

[런치]미칸야 식당

현지의 인기 음식점



짬뽕과 사라우동 등 나가사키 고유의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차로 바로 근처

6

[2일째]나루 성당

섬 중심부에 자리한 하얗고 아름다운 성당



금교가 풀리면서 고토의 각지에서 잇달아 성당이 축조되었습니다. 나루 성당은 1926년에 현재 위치에 세워졌지만 태풍을 견디지 못해 신도들의 손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현재 성당은 1961년에 헌당되었습니다.



차로 약 5분

7

[2일째]나루 터미널(14:20)



고속선으로 약 30분

8

[2일째]후쿠에항(14:50)



차로 약 20분

[2일째]아분제 비지터 센터

지오파크 지역의 거점 시설



사이카이 국립공원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구주쿠시마 섬부터 이키쓰키시마 섬, 히라도지마 섬 그리고 고토 열도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경관이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국립공원 내 비지터 센터이자 고토 열도 지오파크 지역의 거점 시설로서 영상, 디오라마, 패널 등을 통해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관찰회나 자연 소재를 이용한 공작 등의 강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 패널에는 영어 번역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처

[2일째]아분제 용암 해안

오니화산에서 유출한 용암으로 만들어진 멋진 해안선



까맣고 울퉁불퉁한 용암이 복잡하게 뒤엉킨 여기 아분제 용암 해안은 약 5만년전에 오나다케(큰 산) 근처에 있는 화산 분화로 흘러나온 용암으로 주변 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면 상승으로 인해 지금 현재 해안 경관이 되었습니다.

해안선은 동서로 약7km 이어지고, 아분제 주차장과 동주차장 간에 700m 산책길이나 전망대가 정비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산책하실 때에는 그 계절마다 핀 꽃이나 나무 등 풍경을 즐기실 수 있고 또 용암 해안에서 아카섬, 오우섬, 쿠로섬 등 많은 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맑은 날 등 여러 조건이 맞으면, 멀리에 있는 섬이 떠 보이는 "우키지마 현상"(浮島現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11

[저녁] 후쿠에 지구

갓 잡은 해산물을 맛보세요



©NPTA

계절마다 달라지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점은 고토의 커다란 매력입니다.

12

[숙박] 후쿠에 지구



1

[3일째] 후쿠에항(9:10)



고속선으로 약 20분

2

[3일째] 다노우라항(9:30)



차로 약 5분

3 [3일째] 히사카 섬 잠복 기리시탄 자료관

히사카 섬 기리시탄의 역사를 배우는 공간



잠복 기리시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가사키의 소토메 지구에서 찾아와 마을을 형성하고 금교 속에서도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전파했습니다. 그 사실을 후세에 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자료관입니다.

사전 연락 필수



차로 약 5분

4 [3일째]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1868년, 에도 시대에 만들어진 종교 금지 정책을 이어가던 메이지 정부는 히사카 섬의 종교인을 잡아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 다다미 12개 크기의 작은 감옥에 200명을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혹한 고문의 결과로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내부에는 색깔로 표시된 카펫이 바닥에 깔려 있어 감옥의 크기와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로 약 10분

5

[3일째] 오리가미 전망대



현지 주민들이 만든 전망대로 광활한 푸른 바다와 산, 마을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차로 약 15분

6

[런치] 히사카지마 관광교류거점센터

런치는 예약 필수입니다.



센터 내에서 섬의 식재료를 사용한 일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차로 약 30분 및 도보 약 15분

7

[3일째] 구 고린 성당(세계유산)

메이지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건축물,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



본래 1881년에 건축된 구 하마와키 성당이 1931년에 해체되어 히사카 섬의 고린 지구에 재건되었습니다. 구 고린 성당은 낡아 무너지기 직전에 현지 불교회의 도움으로 소실을 면했습니다. 성당의 소유권은 중요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 고토시로 이양되었습니다. 고린 지구는 외진 곳에 있어 히사카 중심부에서 차량으로 바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성당은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에 속한 '히사카 섬의 마을'의 일부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견학하시려면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바로 옆

8

[3일째] 고린 성당

구 고린 성당에 인접한 성당



구 고린 성당의 노후화로 인해 축조된 성당. 성당이 자리한 지구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차에서 내려서 산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차로 약 35분

9

[3일째] 하마와키 성당



콘크리트로 만든 고토 최초의 성당이기도 했습니다.



차로 약 2분

10

[3일째] 다노우라항(17:10)



고속선으로 약 20분

11

[3일째] 후쿠에항(17:30)



12

[저녁] 후쿠에 지구

섬의 진미 '갓툽포'



SNS에 올리기 좋은 섬의 명물 요리. 모양과 맛을 즐겨 보세요.



차로 약 10분

[4일째] 묘조인 절(일본유산)



묘조인 절은 수 세대에 걸쳐 고토 가문의 봉건 영주들이 참배 장소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본당은 1778년 28대 고토 영주인 고토 모리유키에 의해 완공되었습니다.

고토시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사원인 묘조인 절은 수 세대에 걸쳐 고토 가문의 봉건 영주들이 참배 장소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본당은 1778년 28대 고토 영주인 고토 모리유키에 의해 완공되었습니다. 묘조인 절은 고토 진언종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본당 천장의 회화는 유명한 화가인 가노 에이토쿠의 제자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승 구카이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다고 알려진 묘조인 절은 가마쿠라와 무로마치(12세기 중반~16세기 중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불교 유물과 불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차로 약 15분

2

[4일째] 오니다케 산

화산루(펠레의 눈물)를 산출한 후쿠에지마 섬(福江島)의 상징.



고토시(五島市)의 상징이 된 화산입니다. 해발 315m에 전면이 잔디로 뒤덮힌 아름다운 유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걷는 트레킹은 가까이서 후쿠에의 시가지가, 멀리는 가미고토(上五島)의 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여름에는 중나리꽃, 가을에는 용담꽃 등의 식물과 만날 수 있습니다.



차로 약 45분

3

[4일째] 다이호지 절(일본유산)

명승 구카이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머무른 이후 '서일본의 고야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절.



다이호지 절은 다이호 원년인 701년에 지토 천황의 요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세기 후인 806년 명승 구카이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언종의 교리를 처음으로 설파했습니다. 이 절에는 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무로마치 시대(1336-1537)의 열반도 몇 점, 청동으로 만든 종, 유명한 에도 시대 예술가이자 조각가인 히다리 진고로의 원숭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로 약 15분

4

[런치]NEW 판도라

곰치 요리가 명물



식재료를 제공해 주는 생산자분들을 알 수 있는, 로컬 푸드를 지향하는 음식점. 곰치 요리가 명물이지만 대하 튀김도 매력적입니다.



차로 약 10분

5

[4일째] 오세자키 등대

우뚛 솟은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백아의 등대. 그 너머에는 동중국해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일본등대 50선 중 한 곳.



1879년 첫 점등을 시작한 등대로 현재의 등대는 1971년 리모델링하여 광달거리가 약 22km에 이르는 일본 굴지의 등대입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백아의 등대와 동중국해에 저무는 석양은 참으로 절경입니다.

*등대와 산책로에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전망대에 있는 화장실을 미리 이용해주세요.

*산책로 곳곳에 경사와 나뭇잎 등으로 인해 미끄러운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약 10분

[4일째] 이모치우라 성당과 루드르

현지 신도에게 부탁해 모은 돌로 만든 일본 최초의 루드르 동굴.



이모치우라의 이야기는 오무라번의 잠복 기리시탄이 소금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모치우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1891년 바티칸에 루드르 동굴의 레플리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고토에서 가톨릭 신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던 페뤼 신부가 현지 신도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모양의 돌을 모아 1899년 일본 최초의 루드르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후쿠에 공항 또는 후쿠에항까지 차로 약 45분

• GOAL